

남북 '27일간의 동행' 승리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였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최종전 전원 출전으로 여정 마무리

5전 전패·8위·2 골 수확...6천석 가득 메운 관중들 환호

남북 단일팀의 역사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정이 20일 마무리 됐다. 승리는 없었지만 '평화'와 '우리는 하나'가 남았다.

단일팀은 20일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치른 스웨덴과의 7~8위 순위 결정전에서 1-6패를 기록했다. 단일팀은 이번 올림픽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5전 전패,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단일팀이 기록한 골은 단 2개, 28차례나 골문을 열었지만 단순한 성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됐다.

메달과 상관없는 경기였지만 이날 경기의 입장권 6000장은 일찌감치 팔려나갔다. '하나 둘 셋, 팀 코리아!'를 외치며 마지막 일전에 나선 단일팀 선수들의 움직임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더졌다. 하지만 관중석의 함성은 오히려 더 커졌고, 단일기는 더 힘차게 울려퍼졌다.

한수진이 이번 대회 두 번째 골을 장식했을 때는 금메달이라도 확정된 것처럼 선수들 관중을 모두 환호했다.

'첫 승'이라는 목표 달성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관중석의 열기는 그대로였다. 관중들은 단일팀의 사연 많았던 '27일간의 동행'에 기립 박수와 함성으로 응답했다.

남북 선수들은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고, 새러 머리 감독과 북한의 박철호 감독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단일팀은 '하나 둘 셋, 팀 코리아' 마지막 구호를 남긴 채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정을 끝냈다.

을 끝냈다.

시작은 돌아왔다.

여러 논란 속에 지난달 25일 진전선수촌에서 새러 머리 감독이 이끄는 한국 팀과 박철호 감독의 북한 선수단이 처음 만났다. 대회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단일팀'으로 묶였고, 우리의 말이 쏟아졌다.

어색한 표정으로 첫 만남을 가졌던 남북의 선수들은 그러나 이내 하나가 됐다. 라커룸을 함께 쓰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는 등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누면서 '친구'가 됐다.

개회식에서도 단일팀은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박종아(한국)와 정수현(북한)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 성화를 맞잡고 나란히 성화대로 달려 올라갔다. 이어 최종 주자인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성화를 건네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다.

단일팀을 굶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골리아'와 싸우는 단일팀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단일팀의 경기가 열린 날 경기장 관중석은 늘 가득 찼다. 일방적인 싸움에도 국민들은 경기를 보면서 골을 기원했다.

남북이 아닌 하나가 되어 치른 경기는 모두 끝났지만 단일팀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일팀에서 함께한 북한 선수 12명은 25일 폐회식까지 참가한 뒤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수고했어요” 20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7~8위 순위 결정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패한 단일팀 박철호 북한 감독이 골리(골키퍼) 신소정과 아쉬워하며 포옹하고 있다. 왼쪽에서 새러 머리 총감독이 눈시울을 붉힌 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머리 감독은 “북한 선수들이 돌아가는 26일까지 계속 가르칠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다음 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고 있다.

하나가 되었던 '27일의 동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연 때를 특별한 시간과 도전이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日 NTV에 보도된 광주일보

평창올림픽 리포트에 소개

특별취재단을 꾸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일본 NTV에 소개됐다.

일본 NTV는 최근 'news every'라는 프로그램에서 평창을 연결해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취재 리포트'라는 코너에서 지난 9일 자 광주일보 20면에 소개된 기사 아나운서 마코토 야마자키의 기사를 소개했다.

북한 선수단 입촌식을 취재한 마코토 아나운서는 당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나라 입촌식과 달리 마지막에서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역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외국인에 눈에 보인 남북의 모습을 이야기한 뒤 “평창 다음에 우리 도쿄, 그다음에 베이징이다. 같은 아시아인데 평창을 시



일본 NTV의 프로그램 news every의 '평창 올림픽 취재 리포트' 코너에 소개된 광주일보 <TV 캡처>

작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언급했다.

한편 NTV는 올림픽의 생생한 현장을 전하기 위해 마코토 아나운서를 포함해 6명의 캐스터를 평창으로 파견했다. 일본 아이돌 그룹 아리시의 쇼쿠라이 쇼도 특별 캐스터로 NTV의 마이크를 잡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도장깨기' 여자 컬링, 미국도 격파 5연승

9-6 제압 6승1패 단독 1위

사상 첫 준결승 무대 밟아

여자컬링 대표팀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5연승을 질주, 한국 컬링 사상 최초 올림픽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여자컬링 대표팀은 20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7차전에서 세계랭킹 7위 미국(스킵 니나 로스)을 9-6으로 제압했다.

초반 주도권을 내줬던 한국은 5엔드 짜릿한 4점 스틸(선공 팀이 득점)로 대역전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예선전적 6승 1패로 단독 1위를 유지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세계랭킹 8위인 한국은 이번 올림픽 10개 출전국 중 랭킹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하는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데뷔한 한국 컬링은 사상 최초로 준결승 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한국은 김초희(리드), 김선영(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은정 순으로 각각 2개의 스톤을 던져 승리를 합작했다. 기존 리드인 김영미 대신 후보 김초희가 출전해 활약했다.

초반에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1엔드, 한국은 샷 실수가 잇따라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2점을 잃었다. 2엔드에는 한국이 득점에 유리한 후공을 잡았다. 그러나 미국은 하우스 중앙(버튼)

을 장악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모여 있는 미국 스톤들을 흔들어 버튼을 탈환하고 1점을 획득했다.

3엔드에는 한국 스톤 3개가 득점권에 있었지만, 미국이 마지막 스톤을 중앙에 놓으며 1점 달아냈다.

4엔드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김경애가 가드 사이 좁은 길을 통과해 하우스 안에 있는 미국 스톤을 쳐내는데 두 번 연속 성공하면서 난관을 타개했다. 한국은 1점 획득해 2-3으로 쫓아갔다.

클러다니던 한국은 5엔드 결정적인 샷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한국 스톤 3개가 하우스 중앙(버튼)에 있는 미국 스톤 1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은정의 마지막 스톤은 하우스에

있던 미국 스톤을 쳐낸 뒤 버튼 안에 있는 미국 스톤을 쏙 빼냈다.

하우스 중앙에는 한국 스톤만 4개 남았고, 미국은 마지막 샷에 실패 한국 스톤들이 그대로 득점이 됐다. 6엔드 미국에 1점 내준 한국은 7엔드 1점 달아냈다. 하지만 7엔드에는 무득점을 만들고 다음 엔드에도 후공을 잡으려는 '블랭크 엔드' 작전에 성공하지 못한 결과였다.

한국은 8엔드 2점 잃으며 1점 차(7-6)로 추격당하는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9엔드 2점을 달아나 3점 앞선 상태에서 마지막 10엔드에 들어섰다. 한국은 10엔드 미국 득점 기회를 완벽히 차단했고, 결국 미국은 스톤을 다 던지지도 않은 채 백기를 들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고 제2018-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 (요양병원)
- 대지 : 522.3㎡
- 건물 : 총8층 2,073.86㎡ 중 5층바다
공사중지 상태
최저 예정가격 : 금 일십삼억일천이백오십만원
(₩ 1,312,500천원)

2. 입찰 일시 : 2018. 03. 05. (10 : 00 ~ 11 : 20)

3. 개찰 일시 : 2018. 03. 05. (11 : 30)

4. 기타사항
- 건축물 완공 시까지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안전
점검비 등의 비용은 낙찰인의 책임사항임.

참고사항 :
1) 시공사 및 하청업체 유치권포기각서 인증 완료.
2) 시공사 상대 공사대금
-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 57326 1심 승소
- 광주고등법원 2016나 16275 채무부존재확인
2심 (항소심) 승소
- 2017.09.27 확정 사건 종결.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 문의 010-7659-8900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9일 (금) 16:00
2.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30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견결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광양선박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대표이사 이 경 희 (직인생략)